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266
----------	------

발의연월일 : 2024. 12. 5.

발 의 자 : 윤재옥 · 최수진 · 김정재  
권영세 · 김기웅 · 이인선  
김태호 · 김성원 · 김상훈  
엄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국유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비용을 공사가 부담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함.

또한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

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7조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총 사업비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준공 시 공사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사에 귀속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와 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u>제11조의2(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공항시설법」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공항시설법」 제7조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총 사업비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준공 시 공사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가 국가나 제3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공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에 한하여 공사에 귀속된다.</u>